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6월 14일 화요일 (음 5월 10일) 제 157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여름 알리는 금계국 만개  
아름다운 금빛 자태 뽐내

진안군 주천면 신양리 주천생태공원 54만2,000㎡에 여름을 알리는 금계국이 만개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곳은 국내 최장 무주탑 보도현수교가 있는 구룡산과 여름철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 윤일암반일암 중간에 위치해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매일 INDEX

4면 작은 천사들의 기부행렬

6면 효자 2동 삼천번 우회도로 효과 의문

## 도내 '효자품목' 복분자 처리 '어찌할꼬'

한때 전북지역 효자 품목이던 복분자가 소비 급감 등의 원인으로 재고가 쌓여 전북도가 복분자 처리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에 도가 '복분자 판매 대책반'을 운영하고 수매운동을 전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재고량이 많아 원활한 처리가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이달 말 본격적인 복분자 수확이 시작돼 도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가고 있다.

현재 도내 복분자 재고량은 전국 생산량의 13% 정도인 931톤 정도이다. 지역별로는 고창 622톤, 순창 210톤, 정읍 65톤 등이다. 전북지역 한해 복분자 생산량은 5,000여톤(2015년 5,143톤, 2016년 4,936톤)정도로 이는 전체 복분자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도내 복분자 재배농가들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300억대의 수익을 올리는 등 복분자는 전북지역 농가의 효자 품목으로 많은 사랑을 받

오디·아로니아에 밀리고  
메르스 여파 등 인해  
소비 급감·재고 급증 속  
이달 말 수확 앞두고  
작황 좋아 풍작 예상

농가, 반가움보다는  
판매할 걱정이 더 앞서

었다. 그러나 2011년부터 복분자 원물가격 상승으로 복분자 가공업체와 계약 불이행 문제를 남기는 등 불협화음을 겪어 복분자 생산량은 유지된 채 가공업체들의 연간 구매량은 감소 유지로 선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메르스의 여파로 인해 소비가 급감하고 이에 따라 대형 복분자 가공업체들도 큰폭으로 구매량을 줄여 재고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경기침체와 소비패턴의 변화도 복분자 재고량 급증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복분자의 가공형태는 아직까지 포도, 오디,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과 비슷한 형태(주류 등)로 가공돼 해당 농산물이 복분자를 대체함에 따라 복분자의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를 방증하듯 오디와 블루베리, 아로니아의 소비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오디 소비는 2010년 3970톤에서 2013년 4653톤, 2015년 5748톤까지 증가했다. 블루베리도 2010년 475톤에서 2015년 1451톤, 아로니아도 2010년 95톤에서 2015년 208톤까지 늘었다. 이와같은 현상으로 올해 풍년이 예상되는 복분자 농사에도 농가들은 반가움 보다는 시름만 늘어가고 있다.

지난 9일 전북도와 고창군 등에 따르면 현재 복분자 수매가는 kg당 5000원 선이다. 지난해에는 7000원이었고 수년 전에는 1만 원을 넘기

도 했다. 게다가 수매량이 줄면서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이종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도는 최근 '복분자 판매 대책반'을 운영하고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한 오는 15일부터 복분자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직거래 장터 및 로컬푸드 매장 판매도 본격화 한다는 방침이다.

소수회사를 대표하는 보해양조(주)는 복분자 재고량도 올해 생산되는 복분자를 합해 415톤의 복분자를 수매기로 결정해 지역농협의 재고분을 덜어 솜통을 뜨게 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재고,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는 어느 해 보다 복분자 소비가 어렵다"면서 "무더운 날씨에 수확한 전북산은 면역증진 등에 탁월한 만큼, 생과를 구입해 집에서 술이나 음료로 담아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

## 도내 의원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배정

교문위원장에 유성엽 의원  
국교위에 정동영·안호영  
산통위·예결특위 정운천 등

### 〈상임위 배정 의원 명단〉

- 김광수(전주 갑) - 보건복지위 간사
- 정운천(전주 을) - 산통위, 예결특위
- 정동영(전주 병) - 국교위
- 이춘석(익산 갑) - 법사위
- 조배숙(익산 을) - 산통위
- 김관영(군산) - 운영위, 정무위 간사
- 유성엽(정읍고창) - 교문위원장
- 이용호(남원) - 안행위, 운영위
- 김중희(김제부안) - 농해수위
- 안호영(원진무장) - 국교위

20대 국회 전반기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활동할 상임위원회가 결정됐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13일 20대 국회 상임위 배정을 완료했다.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정책 강화 국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전북 출신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단합해 전북발전의 예산과 행정에도 도움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는 '유성엽(정읍고창)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수(전주 갑)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정동영(전주 병)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조배숙(익산 을)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용호(남원순창임실) 의원 안전행정부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김중희(김제부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관영(군산) 국회의원회장과 정무위원회 간사' 등이다.

또 도내 출신 비례대표인 박주현 의원은 기획재정부위원회, 김중로 의원은 국방위원회 간사, 채이배 의원은 정부위원회에 각각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도 13일 의원 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을 마쳤다.

3선인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됐고 초선인 안호영 의원(원진무장)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배정받았다.

새누리당 정운천(전주을)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정됐다.

정 의원은 전북의 주요 현안인 탄소산업과 금융산업, 새만금개발 등의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상임위원 산자위로 희망해 왔다.

또 전북도 국가예산을 챙기기 위해 예산결산위원회를 희망했다.  
/신광영 기자

## "화폐수급 업무 당장 추진 어렵다"

(한은 전북본부)

송하진 지사, 이주열 한은 총재에 업무 재개 요청  
이 총재 "성과 등 명분 필요... 좋은 여건 이뤄지도록 노력"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 수급업무 복원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측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을 비쳤기 때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한은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를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최근 화폐수급 업무가 공기업 선정화 방침에 따라 전국 16개 한국은행의 지역본부에서 수행하던 것이 최근 통폐합 됨에 따라 도내 금융기관은 '대전충남본부'와 '광주전남본부'를 통해 화폐수급을 거래하게 돼 도내 금융기관이 불편함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도는 ▲서부권 유일의 40조 자산규모 금융지주회사인 'JB금융지주'의 본사소재지로 동북아 금융서비스업 중심지로서 성장가능성 존재 ▲기금운용본부 이전(2017년 2월)과 함께 국민연금기금을 중심으로한 제3의 금융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금융인프라 기능강화 필요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대중국 경제 교류협력의 전초기지가 될 국가적 산업육성지로서 화폐수급업무 재개필요

성 증가 ▲광역지역권 중 화폐수급업무가 부재하는 극소수의 지역으로 지역발전방안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판단 필요 등을 이유로 들며 화폐수급 업무가 한은 전북본부에서 재개 되기를 요청했다.

이날 송 지사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으로 금융서비스업 발전에 대한 도민의 열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금융서비스업의 기초 인프라인 화폐수급업무 재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어 업무재개를 위한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은 전북본부는 기존화폐수급 업무시절이 존재해 추가적인 비용부담 없이 화폐수급 업무재개가 가능하므로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자체적으로 (화폐수급 업무를)통폐합 한 이후 4년여만에 재개하는 업무인 만큼, 성과 등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면서 "전북의 특수한 상황이나 금융타운 조성 등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공감하며 향후 좋은 여건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화폐수급업무를 희망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 임실군의의회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바른 의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열린의정! 으뜸의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임실군의의회

IMSIL-GUN COUNCIL

임실치즈테마파크